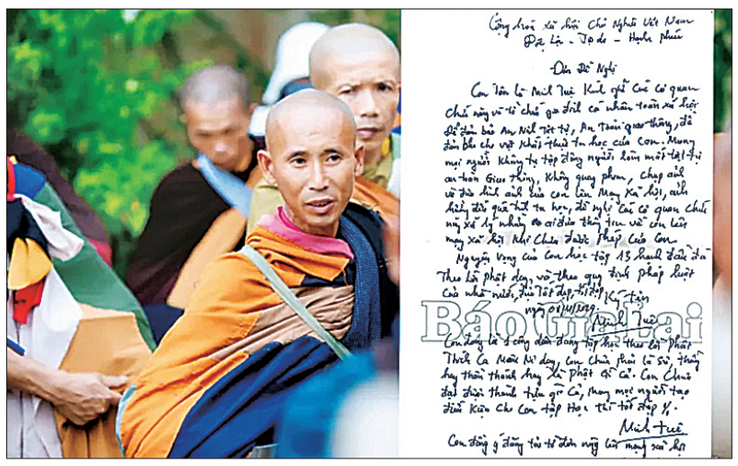
베트남 '맨발의 순례자'는 왜 호소문 냈나

본인 사진 · 영상 게시 중단 호소
당국에 무단 게재 처벌 요청도
누리꾼 "강요로 인한 작성 의심"

박정현 객원기자


'맨발의 순례자' 레 안 투의 자필 호소문 사진. 사진출처=GIA LAI 신문

'맨발의 순례자'로 유명한 레 안 투(Le Anh Tu)가 발표한 호소문에 자신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1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투는 최근 베트남 중부 잘라이(Gia Lai) 지역 매체를 통해 틱 민 튜(Thích Minh Tuệ)라는 법명으로 "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사진과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투는 "안전한 교통과 질서를 보장하고, 나의 수행과 탁발 생활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나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불교를 수행하고 있을 뿐, 스님이나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을 향해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게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인 11월 14일(현지시간) 오전 베트남 국영언론은 일제히 해당 청원서의 내용을 보도했고, 많은 누리꾼들은 "정당한 요청" "투를 방해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과 일부 누리꾼들은 호소문이 당국에 의해 작성되거나 강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투의 과거 필체와 호소문의 필체를 비교하며 투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원서에서 투가 법명으로 세 번 서명을 남긴 점과 '처벌'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베트남 국영언론은 보통 댓글을 검열해 편집자들이 원하는 댓글만 노출시킨다"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투가 직접 청원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리스트 하 뚱 롱(Hà Tùng Long)은 자신의 SNS에 "투가 왜 호소문에 법명으로 세 번이나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투는 과거에 문서 작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그가 청원서를 작성하는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법명은 법적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그가 정말 호소문을 작성한 것이라면 그의 평소 수행 정신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며 "분노를 없애고 욕망을 버리는 수행을 선언했던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만을 들고 베트남 전역을 순례했다. 몇몇 유튜버들이 그가 수행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사람들은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그를 비교하며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열광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가 비출가자임에도 출가자 행세를 한다는 점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인해 안전 문제 및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한 바 있다.

泰 '불두 키링' 지적에 "과민반응" 역지적

국가불교국 부국장 SNS서 시작
누리꾼 "불교계 문제 해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불두 인형 키링. 사진출처=키링 제작 업체 공식 SNS

불교국가 태국에서 불두 형태의 캐릭터 키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월 12일, 태국 뉴스 전문 매체인 'X 봄버 타이'는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1일 태국 분 차트 국가불교국 부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굿럭 아미토포(Amitofo) 키링'을 소개하며 비판했다. 색색의 불두 모양 인형이 달린 키링은 행운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홍보문구로 판매되고 있으며 개당 549바트(약 2만2천원)에 판매중이다.

분 차트 부국장은 "불교의 가르침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부처님의 머리를 상징하는 상품을 단순한 액세서리나 열쇠고리로 취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해 국가불교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해를 요구할 뿐이지만, 가능한 빠른 대응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으나 태국 불교계의 중요 사안들을 담당하는 국가불교국의 부국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게시글은 논란의 장이 됐다.

젊은 태국 누리꾼들은 국가불교국이 과잉반응을 한다고 거세게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다른 불교국가에서도 불보살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은데 왜 태국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불두 키링은 그 홍보문구처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최근 태국불교계의 다양한 스캔들들을 보면 화가 난다"라며 "국가불교국이라면 작은 캐릭터 상품이 아닌 불교계의 문제를 지적하라"며 역으로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불상조각가, 노토지방 지진피해 불상 복원 나서

부부 조각가 문화재 구조사업
사찰 5곳 불상 복원, 활동 지속


파손된 불상을 수리하고 있는 요시다 부부.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지난 1월 1일 100년 만에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보고됐다. 사찰의 붕괴나 성보문화재의 파손 등도 보고된 한편, 이시카와현 출신 불상조각가 부부가 고향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11월 16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과 'N TV 뉴스' 등은 부부의 활동을 특별보도했다.

일본 남부 고치현에서 불상 조성 및 수리 전문가로 활동 중인 요시다 야스마사와 아내 요시다 사오리 부부는 지난 12일부터 노토반도 산속 깊은 곳의 사찰들을 돌며 지진에 훼손된 불상들의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일본 문화청의 문화재 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부부의 고향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요시다 씨는 "내가 배우고 활용하는 기술이 고향에 도움이 되길 바랬다"며 직접 자원한 사실을 밝혔다.

부부가 하는 작업은 완전한 수리가 아닌 훼손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와 더 이상의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응급조치다. 보고에 따르면 불상의 광배나 지물, 팔다리와 같은 취약한 부위 대부분이 파손됐다.

지역 사찰인 묘센지는 법당에 있던 부동명왕과 지장보살상의 응급수리를 하게 됐다. 묘센지 주지 카와모토 유케이 스님은 "시골 절이라 불상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를 하는 등 불사를 진행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며 "불상조각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파손된 불상을 수리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요시다 부부가 담당한 또 다른 사찰은 지진으로 인해 법당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건물을 덮쳤다. 이로 인해 본존불인 대일여래상의 광배가 파손됐고 스님들이 피난을 떠나 사찰의 재건도 요원해졌다. 이에 불자들은 불상이라도 수리하자는 원력을 모아 부부에게 불상 수리를 요청했다.

야스마사 씨는 "부처님을 조금이나마 원래 모습에 가깝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불자들의 고뇌가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부처님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해준다면 큰 보람이 된다"고 작업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다.

요시다 부부는 11월 16일까지 노토 지역 내륙의 사찰 5곳 불상을 응급 수리했다. 부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피해를 입은 타 사찰에 수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호주 지역민 반대 극복…사찰 건립 '승인'

'소음 금지' 등 19개 조건부로


호주 퀴나나 지역 시의회가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찰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은 수도원 소속 스님들 모습. 사진출처=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지역민 반대에 부딪혔던 호주 퀴나나 지역의 스리랑카 불교 사찰 건립이 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마침내 착공될 예정이다.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The West Australian)는 11월 20일(현지시간) "퀴나나시 캐주어리나(Casuarina)에 건립 예정인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찰(Mahamevnawa Buddhist Monastery of Perth)의 개발 신청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찰 건립에는 19개 조건이 부과됐다. 당초 사찰의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찰 건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사고 위험, 농촌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해왔다.

한 시민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사찰 입구가 내 집과 가까워져 평온한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 사찰이 들어서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의회는 △찬불가, 종소리 같은 소음 발생 금지 △야외 활동과 확성기 사용 금지 △어린이 프로그램은 실내 제한 △소규모, 실내 행사 등 조건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사찰 책임자들이 시의 권고안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승인으로 사찰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미얀마 바간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